

성별에 따른 젠더 관련 이슈 인식 격차 감소를 위한 대학 교육의 필요성: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The Necessity of Education to Reduce the Perception Gap on the Gender-Related Issu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Focusing on the Case of K University

전승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Seung Bong Jeon*

School of Liberal Arts, KOREATECH, Cheonan 31253, Korea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K대학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 교육 체계 내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역으로 남성이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이와는 반대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의 노력 정도 및 소득이 낮은 이유, 취업 후 업무능력 등에 대해서도 남성은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셋째, 남성들의 경우 여성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남성들이 여성 할당제와 페미니즘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는 남성에게 부과되는 전통적인 성 역할 모델의 영향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의 남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고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쟁점 교육, 실수 친화적 공간 마련을 통한 쟁점의 공론화, 그리고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sparities in perceptions regarding gender-related matters among students at K University, determined by their gender, and to propose solutions with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y men believe that there is no structur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at 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whereas women show the opposite. Second, men and women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women's level of effort, reasons for low income, and work ability after employment. Third, men show unfavorable attitudes towards feminism compared to women. Fourth, the reasons men show hostile attitudes toward the female quota system and feminism include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gender role model imposed on men and the difference in men's and women's views on structural inequality. To reduce the perception gap between men and wome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hegemonic masculinity, apply issue-centered education using accurate information, publicize issues by preparing a mistake-friendly space, and respond to the perception gap at the university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hip education.

<http://dx.doi.org/10.14702/JPEE.2023.40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7 July 2023; Revised 31 July 2023

Accepted 21 August 2023

*Corresponding Author

E-mail: sjeon1230@koreatech.ac.kr

Key Words: Gender conflict, Perception gap, Issue-centered education, Mistake-friendly space, Citizenship education

I. 서론

이 연구는 청년 세대 남녀가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해 보이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학 교육 체계 내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 세대 젠더 갈등의 양상은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전체 응답자(1786명) 중 66.6%가 “한국 사회의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20대는 79.8%, 20대 여성으로 한정하면 82.5%로 가장 크게 동의했다.

따라서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선행연구를 제외하고는[1] 20대 남녀 간 접미한 대립의 전개 과정 및 원인에 대해 고찰할 뿐, 상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K대학 학생들의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젠더 갈등은 남녀가 동성의 인식 뿐 아니라 이성의 생각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제이다[2]. 따라서 대학 교육의 차원에서 이 이슈를 공론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진단의 차원에서 성별에 따른 현실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 첫째, 20대 남녀의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 둘째, 20대 남녀는 어떤 부분에서 큰 인식 격차를 보이고 있는가?
- 셋째, 20대 남녀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학 교육 시스템 내의 방안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청년세대 젠더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청년 남녀 사이의 젠더 갈등 인식, 젠더 불평등 의식, 공정성에 대한 다른 감각, 그리고 남성 피해자와 여성 가해자라는 전복된 젠더 관계의 서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현재의 젠더 갈등의 배경이 되는 장

기적인 사회변화이다[3-5].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진입하였고 그 결과 노동 시장 유연화와 이에 따른 청년 세대 내부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현재 청년세대의 인생 모토는 ‘생존’으로 귀결되고 있으며[6], 이와 같은 상황이 청년세대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를 낳게 되는 배경으로 작동한다.

청년세대 남성들은 동 세대 여성들을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표준적인 남성 생애주기를 달성하기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들은 동 세대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어 각종 정책적 혜택을 받으며 자신들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놓이게 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본다[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남녀 평등을 넘어 여성 우대를 주장하는 사고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공정성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반면 여전히 청년 여성들의 다수는 자신들이 사회구조적, 그리고 일상의 수준에서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즉, 20대 여성들은 출발선에 이미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7].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청(소)년의 생애과정과 미래 전망>연구에 따르면 청년 여성의 74.6%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다[8]. 최근 논의되는 운 평등주의(luck-egalitarianism)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은 부당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타고난 운이라는 점에서 결코 공정하지 못하다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7].

남성 피해자와 여성 가해자라는 전복된 젠더 관계의 서사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에 주목한다. 남성들이 다수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들에게 확증 편향의 장소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젠더 갈등이 시작되었고, 페미니즘을 수용한 여성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여성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를 제기하여 기득권층으로 변모하고 있고, 남성들은 이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식의 논의가 생성 및 확산되는 공간이다[9,10].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성혐오나 반 페미니즘 정서가 어떤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지를 밝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대체로 이십 대 남성의 현실인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청년들은 남녀 각기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피해자 경쟁”을 하고 있다[3]. 한국 청년세대 젠더 갈등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청년세대가 마주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 성별에 따라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공정성의 감각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5,7].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K대학교 남녀 학생들의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에서 2022년 하계 계절학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에 걸쳐 본 연구자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젠더 관련 설문을 활용하였다. 위 설문에 최초 응답한 학생은 121명이고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표본을 제거한 후 최종적인 연구 표본은 남자 55명, 여자 26명, 총 81명이다. 설문은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해 진행되었고, 해당 설문지에는 설문의 목적 및 익명성 보장 관련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설문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학생들은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전 공지하였다.

B.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인 20대 남녀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였다. 우선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4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11]. 이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변수는 해석의 방향을 고려하여 코딩을 수행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 페미니즘 태도에 해당되며, 6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 0.844$ 이므로 페미니즘 태도를 측정하는 신뢰성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는지, 차별 받는 성별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여성의 낮은 소득의 원인이 성차별에 기인하는지를 질문하여 남녀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 - 여성은 힘든 일을 회피하면서도 동등한 권리

만을 주장한다거나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그들의 노력 부족이나 취업 후 업무능력이 남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견해 - 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마련하였다.

최근 젠더 갈등과 관련하여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성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여성 할당제 찬반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고, 취업 후 업무능력에 대한 부분도 이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및 남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지 혹은 빼앗고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전통적인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남성에게 더 크다”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변수들을 활용하여 20대 남녀 간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분석에는 Jamovi 2.3.28 version을 사용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아래의 분석결과 부분에 제시된 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통계적 가정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구조적 차별, 차별 받는 성별, 여성할당제,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카이제곱(chi-square)을 통해 남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기타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 및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고, 반 페미니즘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 이외에는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반 페미니즘 태도의 경우는 등분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Welch's t-test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아래 표들을 통해 제시하였다.

20대 남녀는 젠더 관련 이슈들에 대해 대단히 큰 견해를 보이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질문과 “다음 중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성별은?”에 대해 성별에 따라 명확히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 현재 한국의 젠더 갈등은 본질적으로 차별에 대해 20대 남녀가 가진 상반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대다수의 남성은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이 철폐되었고, 오히려 남성이 차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여성은 이와는 상반된 인식을 가진 것이 확인되었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20대 남성은 ‘여성은 노력이 덜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것이지 성차별 때문이 아니며, 여성들이

표 1. 차별에 대한 남녀 인식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s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	맞다(예)	틀리다(아니오)	Total
남	25	30	55
여	1	25	26
$\chi^2(p)$	14.0 (<.001) ***		
다음 중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성별은?			
성별	남성	여성	Total
남	27	28	55
여	1	25	26
$\chi^2(p)$	16.0 (<.001) ***		

p* < 0.05, p** < 0.01, p*** < 0.001

힘든 일을 회피하지만 권리는 동일하게 주장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4), 5)를 함께 살펴보면 능력과 성취에 따른 차별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남성의 업무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취업 시장 등에서 남성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한 경쟁과 룰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 표 1, 2의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20대 남성은 과거와 달리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만을 원하는 것으로 동 세대 여성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20대 여성들의 경우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여성이 더 차별 받는 성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보기에 여성과 남성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때문이다.

5)의 능력주의 관련 질문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20대 남녀는 공통적으로 능력주의적 세계관을 공유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애초에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이 철폐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능력대로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공정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소위 여성 할당제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감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애초에 여성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능력주의 관점에서 볼 때 더 공정한 것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 3의 남성과 여성의 (고위공무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왜 20대 남성들 중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20대 남성은 능력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취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하는 인식과 맞물리면서 페미니즘은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부정의를 생산하는 사상체계"로 간주되며 페미니즘에 경도된 사람들(20대 여성)의 경우 부정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남성들이 역차별

표 2. 각종 젠더 관련 이슈들에 대한 남녀 인식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s perceptions on various gender-related issues

구분	평균		표준편차		Mann-Whitney U	p-value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일을 통해 성공하려는 노력이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2.60	1.42	1.30	0.90	334	<.001***
2) 한국에서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성차별 때문이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1.83	3.04	0.86	0.99	268	<.001***
3) 여자들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동등한 권리만을 주장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3.40	1.73	1.08	1.04	209	<.001***
4) 취업 후 업무능력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뛰어나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2.84	1.58	1.23	0.70	293	<.001***
5)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 매우 동의)	3.51	3.42	0.64	0.58	645	0.420
6)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3.67	2.54	1.29	1.27	375	<.001***
Welch's t						
7) Feminism 지수 (1 = 아주 선호함 / 4 = 아주 싫어함)	3.33	2.44	0.44	0.66	6,297a	<.001***

^a Levene's test is significant (p < .05), suggesting a violation of the assumption of equal variances
p* < 0.05, p** < 0.01, p*** < 0.001

표 3. 고위 공무원 여성 할당제에 대한 견해 차

Table 3.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female quota system for high-rank officials

(고위 공무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은?			
성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Total
남	4	51	55
여	13	13	26
χ^2 (p)	19.4 ((.001) ***		

p*(<0.05, p**(<0.01, p***(<0.001

당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12]. 이 지점에서 추가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20대 남성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20대 남성의 현실 인식 및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가 크고 이는 표 2의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대 남학생들의 경우 가족 부양의 일차적 책임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또래 여성에 비해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성취는 손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과 규범의 괴리 속에서 20대 남성은 여성을 “생존을 두고 경쟁해야 할 라이벌”이자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대상으로 간주하기 쉬우며[9,13], 따라서 부당한 요구와 동일시되는 페미니즘, 그리고 페미니즘의 영향 하에 발생되었다 여겨지는 각종 정책들은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며 나아가 ‘자신이 달성해야 하는 과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결국 페미니즘이나 여성 관련 정책은 20대 남성의 입장에서 전통적인 남성성에 입각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자신들의 고군분투가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로 간주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남성 역할을 성취해야 한다는 짐을 더 무겁게 만드는 불공정함으로 작동한다.

표 4는 20대 남녀의 기성 세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위 응답은 ‘20대 남자는 이중으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중으로 박탈당했다는 말의 의미는 20대 남성들이 기성 세대, 그리고 동년배 여성 양자에게 모두 치인다는 식의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20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성 세대에 대한 반감이 덜하다는 점에서 50대가 20대의 밥그릇을 뺏고 있다는 방식의 세계관을 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대 지방대 남성들이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부합해야

표 4. 기성세대에 대한 남녀 학생들의 인식 차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bout older generations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가 열어주고 있는가?			
성별	기회를 빼앗고 있다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Total
남	38	17	55
여	11	15	26
χ^2 (p)	5.30 (0.021) *		

p*(<0.05, p**(<0.01, p***(<0.001

하는 자아 성취’라는 이상 사이의 간극에서 불안이 발생하며, 이 불안의 화살은 기성세대 및 취업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동년배 여성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20대 남성들이 여성,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 배타성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V. 공존과 이해를 위한 방향

현재 K대학교 남녀 학생들의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K대 남학생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여전히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취를 저해하는 정책들을 불공정으로 여긴다. K대 여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한국사회에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이 남아있기에 현실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시민 교육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민 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비판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질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14]. 점차 약화되어가는 공동체를 유지 및 갈수록 침해되는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목적으로 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들의 공감, 소통, 배려, 협력하기 능력을 함양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1]. 현재와 같은 20대 남녀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시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 교육의 필요성 및 위에서 살펴본 20대 남녀의 현실 인식 격차를 바탕으로 현재의 갈등과 오인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고찰, 둘째,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쟁점 교육, 셋째, 이와 같은 교육이나 성찰이 실현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실수 친화적 공간’ 마련, 넷째, 대학 교육에서 젠더 갈등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A.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 문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개념은 R.W. Connell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남성성은 하나의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다양한 남성성 가운데서도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5]. 즉,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남성성 중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란 한 사회에서 표준화되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설정된 남성성이며, 이에 못 미치는 남성성을 차별하거나 주변화시키며 특권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란 다수의 남성이 실제로 수행하는 남성성이 아니라 일종의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남성의 모델이다. 한국의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경쟁과 성공, 위계와 복종, 성적 능력과 물리적 힘, 감정의 절제, 회사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달성하는 것 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 작동의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성취하고 따르는 것이 남성에게 있어 적합한 사회화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작동에 대해 우리는 성찰적인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많은 20대 남성들은 표준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압력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남성들의 역할별 논의 기저에 깔려 있다. 따라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자이기 때문에 ... 해야 한다’라는 방식의 특정 정체성 및 이에 맞춰 권유되는 행동 양식이 가지는 비자연성과 그것이 지니는 압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6]. 같은 맥락에서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대안적 남성성을 실현할 기회와 자유, 문화가 허용되어야 한다[17].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바람직하고 표준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수행에서 벗어나 남성들도 새로운 종류의 자아 정체성 확립 모델에 대해 고려해 보고 이를 위한 성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인식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한국의 20대 남성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그리고 헤게모니적 남성성 추구가 가져오는 중압감을 이해하는 것은 양자의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쟁점 중심 교육

많은 20대 남성들의 남성 역할론의 근거 중 하나는 소위 ‘여성 할당제’와 관련된 것이다. ‘고위 공직자 여성 할당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의 반응은 상당히 공통적이다. “여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남성에게 허들이 되고 따라서 이것은 역차별이 된다”, “능력에 의한 채용이 공정한 것이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하지만 형식적 평등의 원칙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는 정책 관련 정보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기업의 경우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여성 할당제와 유사한 제도인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시험단계별로 특정 성별의 선발 예정 인원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최근 10년간 위 제도로 인해 남성 응시자들이 추가로 채용되고 있다는 통계가 존재한다[18]. 셋째, 직위는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적 사고 역시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여성 할당제의 경우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 적격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어떤 직종에 특정 성별의 비율이 낮으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 조치가 더 정당하다는 식의 결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결론에 (혹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타국의 역사나 실천 등을 반드시 고려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도 남녀 간 인식의 차이와 정보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다. 2020년 기준 한국 남녀 임금 격차는 31.5%로 1992년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9].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성별 임금 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여성은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구성하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직업, 전공 선택의 측면이나 노력에 대한 대가의 차이로 인식한다. 하지만 20대 여성은 또래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갖추더라도 졸업 후 2년 이내 초기 노동시장에서 19.8%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20]. 여기에 더하여 여전히 육아와 관련된 경력 단절은 남녀 간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9]. 즉 임금 격차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전공이나 직업의 남녀 간 차이로만 환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성 할당제나 성별 임금 격차와 같은 문제는 20대 남녀의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이다. 또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보다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오인이 형성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자 간 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쟁점 중심 교육’이다. 쟁점 중심 교육은 “사회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21]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방식의 교육은 실제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문과 반성적 탐구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타인과 함께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키워주는 방식이다. 쟁점을 중심으로 한 토론은 사회 과학적 지식이 자신의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삶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실에 기반한 쟁점 관련 토론의 기회가 남녀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공간 마련

젠더 관련 이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론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젠더와 관련된 이슈를 수업시간에 다루게 되는 경우 필자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이며, 이는 현재 젠더 관련 이슈들이 지닌 민감성에 더하여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익명성에 기대어 일부 커뮤니티나 에브리타임 등을 중심으로 젠더 이슈와 관련된 극단적이거나 왜곡된 담론들이 암묵적으로 퍼지고 있다.

남녀 공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 성별에 대한 혐오의 정동(affect)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양자 공히 어렵듯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보다 공식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젠더 갈등 그 자체라기보다는 갈등을 발생시킨 의제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논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하다는 점이다[1].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서로 교류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실수-친화적 안전한 공간’이다. 실수-친화적 안전한 공간이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안정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공간이다. 이는 단순히 실수를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관점도 제약을 받지 않고 표현될 수 있으며, 대신 다름을 수용하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타인에게 열려있으며, 자신과는 다른 타인의 견해를 경청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공간을 의미한다[1]. 쟁점 중심 교육이 실수-친화적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 중심에서의 혐오와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이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주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제대로 된 논쟁 공간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젠더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많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1) 보다 편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동성들만의 공간, 2) (동시에) 상대 성별이 겪는 차별과 그들의 입장과 필요를 논의하거나 수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1].

직접 대면의 실수 친화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의 실수 친화적 온라인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젠더 관련된 이슈를 사전에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달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논쟁 참가자들이 모든 의견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 견해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를 우려하여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가 진행 조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전에 특정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취합한 후, 이를 대신 소개하고 차후에 학생들의 의견 개진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는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친숙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aetra는 익명으로 참여하는 패들렛 사용이 협업 학습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22].

또한 여성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량한 남성-약자와 비정상적 여성 집단, 그리고 남성 역차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9,10]. 이와 같은 논의가 갖는 함의는 특정 성별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확증편향을 바탕으로 한 담론 형성의 가능성이 크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배제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K대학은 공대 중심이라는 학교의 특성상 남성들의 견해가 더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의견 왜곡의 조건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젠더 관련 이슈는 공론화되어 다루어져야 하며, 실수 친화적 안전한 공간 속에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타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을 때 청년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 젠더 갈등 관련 교육의 공식화

최근 대학을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이 예전에 비해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대학 구성원 중심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요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학별로 명확한 운영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지 않고 교육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며 그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을 넣고 있다[23]. K대학의 경우도 생활관 입사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법정 필수교육 수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는 비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의 성평등 교육은 그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남성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식적, 비자발적 교육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련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와 협력, 상호 존중과 공존을 추구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24]. 기존의 성평등 교육과 궤를 달리하여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의 형태를 학생 활동 중심 및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고 갈등 해소와 화합 강조를 위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과, 비통과’로 성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K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성차별, 페미니즘, 그리고 젠더 관련 이슈들에 대해 남녀 간 인식의 차이가 현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남성이 차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페미니즘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이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압력을 여전히 내면화하고 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자신들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식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해 동년배 남성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젠더 관련 주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차원에서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남녀 공히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정보 등에 근거한 현실 인식의 틀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현 상황의 해소는 요원해지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활용하여 젠더

갈등이나 인식의 격차가 단시간 내에 급속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현실을 목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공식적인 논쟁과 대립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 방안의 핵심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견해의 교류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점차 첨예화되는 사회적 갈등 양상에서 대학 교육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갈등의 공론화를 통해 공감이나 소통, 차별이나 혐오의 배제, 갈등의 감소 등을 지향하는 시민 교육의 장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1].

본 연구는 특정한 대학의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20대 청년들의 성별에 따른 현실 인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방향 전체의 윤곽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젠더 이슈와 관련된 대학 내 시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젠더 갈등 감소 프로그램 고안에 대한 논의를 향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1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교육연구진흥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1] J. W. Jung and D. S. Woo, “A study on civic education to resolve gender conflict,”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4, no. 3, pp. 669-688, 2022.
- [2] B. C. Kim and B. Shin, “A study on the coorientation of gender conflict issues,”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vol. 15, no. 3, pp. 67-96, 2022.
- [3] Y. M. Kim, “Labor market victim competition and misogyny,” *Hwanghae Review*, no. 97, pp. 36-51, 2017.
- [4] H. Min, “Different minds: young generation and fairnes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6, no. 2, pp. 217-244, 2023.
- [5] S. H. Heo, “Questions posed by the phenomenon of men

- in their 20s,” *New Radical Review*, no. 85, pp. 244-275, 2020.
- [6] H. J. Kim, “Survival, survivalism, young gener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ology of the hear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9, no. 1, pp. 179-212, 2015.
- [7] G. W. Roh and H. W. Lee, “An empirical study on the gender conflict of the young generation: focusing on meritocracy and luck-egalitarianism,”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6, no. 5, pp. 57-86, 2022.
- [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announcement of the result of a gender-sensitive analysis of the life course of young people and a study on future prospects [Internet]. Available: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164
- [9] S. A. Kim, “On the online community and the potentiality of conversation about feminism,” *Media, Gender & Culture*, vol. 32, no. 3, pp. pp. 5-45, 2017.
- [10] S. A. Kim and Y. S. Lee,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men: the weak identity via online community,”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ol. 33, no. 3, pp. 67-107, 2017.
- [11] G. Y. Cheon and H. W. Jeong, *Man in his 20s: birth of male minority self-consciousness*, Seoul: Sisa-in book, 2019.
- [12] S. A. Kim, “Men in their twenties angry at feminism: discourse analysis of ‘Megal’ and the finger controversy,”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no. 53, pp. 443-475, 2021.
- [13] E. K. Bae, “Gendering ‘young generation’ discours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masculinity,” *Gender and Culture*, vol. 8, no. 1, pp. 7-41, 2015.
- [14] K. D. Woo,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civic education,” *Epoch and Philosophy - A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vol. 24, no. 3, pp. 237-267, 2013.
- [15] R.W. Connell, *Masculin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16] M. D. Kim, “Women’s studies at universities and male students’ resistance,” *Discourse 201*, vol. 17, no. 1, pp. 141-175, 2014.
- [17] C. S. Hong, Masculinity of the times [Internet]. Available: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26>
- [18] The Hankyoreh, Abolish the female quota system ! but there is nothing to abolish [Internet].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96181.html>
- [19] S. H. Choi, “Compara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gender wage gap in Korea and OECD countries,”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vol. 19, no. 1, pp. 1-20, 2022.
- [20] C. H. Kim and B. D. Oh, “No gender discrimination before career disruption?: gender earnings gap at the early stage of work career among college graduate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53, no. 1, pp. 167-204, 2019.
- [21] K. J. Roh and D. H. Kang, “The significance and strategy of issues-centered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citizenship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50, no. 4, pp. 49-76, 2018.
- [22] S. H. Sætra, “Using Padlet to enable online collaborative mediation and scaffolding in a statistics course,” *Education Science*, 11, pp. 219-229, 2021.
- [23] K. S. Lee, J. I. Lee, and Y. T. Cheong, “Statu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2030 generations in Daegu and policy direction,” Daegu: Daegu Women & Family Foundation, 2020.
- [24] J. W. Jeong and E. A. Lee, “From hatred' to 'coexistence': the role of liberal art education and the feminist pedagog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0, pp. 229-251, 2017.



전 승 봉 (Seung Bong Jeon)

2013년 5월 : University of Virginia(박사)
 2019년 3월 ~ 현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행복, 사회적 자본, 불평등